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길을 찾아서”

청소년활동의 국제동향과

청소년활동의 방향

|일시|

2011. 12. 22(목) 15:00~18:00

|장소|

교보문고 광화문점내 배움아카데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국제동향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방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1. 청소년 국제활동과 관련하여 고려할 국제적인 동향과 흐름

- 기후온난화와 생태위기,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암과 숙주 이야기,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 지구화(globalization)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 미국 발 (Liman Brothers) 금융위기, 유럽 발 재정위기....등
- MDGs의 진척 미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의 소극화 경향,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의 후퇴.....등
- 이러한 세계적 흐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 청년실업)

2. 국제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 국제활동의 방향

- 새로운 청소년국제활동의 준거개념으로서의 지구시민(global citizen) 그리고 지구시민의식/권(global citizenship)¹⁾
 - * 청소년 시민사회론의 확장
 - * 멀리 있는 이웃과 다가올 세대에 대한 관심과 책임, 관용의 가치, 생태위기 등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등....
- 지구시민교육 (vs.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들의 장단기 해외봉사활동 활성화: 현장의 체험과 참여를 통한 지구 시민의식의 체득
 - 예) 제3세계 워크캠프, 라온아띠, KOICA나 해원협의 장단기 해외봉사프로 그램과 연계
- 우리 안에 와있는 세계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들....
 -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착한 여행,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관광과 자원봉사의 연계
- 각종 국제적인 회의나 거버넌스 흐름에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 예) HLF-4 Youth Forum, Rio+20, 청소년UN의 조직 등
- 국가나 지자체 중심의 교류로부터 민간단체 중심의 국제'활동' 혹은 국제협력으로 전환해야...

1) 지구시민의식(지구시민권)은 전지구적 의식과 세계의 상호연결성에 뿌리를 둔 정신적 각성과 실천을 일컫는다. 지구시민의식은 지구적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필요를 인식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지닌 세계시민으로서의 심성을 개발하도록 동기화한다. 지구시민의식은 또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책임과 함께, 변화의 주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천하도록 이끈다.(Global Citizenship is both an awareness and act of commitment rooted in the spirit of global consciousness and interconnectedness of the world. It recognizes the need to understand global realities and social responsibilities, and motivates people to develop mindset as citizens of the world with human and ethical values. It promotes the collective community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ctions towards justice, peace and sustainability of life by citizens as change agents. - Tokyo statement on Global Citizenship, APAY)

<참고자료>

지구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과 YMCA운동 - YMCA 운동과제를 중심으로 -

지난 2006년 7월 남아프리카 Durban에서 있었던 제7차 YMCA 세계대회에서 한국YMCA의 발의와 영국, 일본, 인도 등 7개 YMCA의 재청으로 Global Citizenship이 향후 세계YMCA 운동의 주요 과제로 채택되었다.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도 지난 2007년 9월에 있었던 4년차 대회에서 Global Citizen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를 우선적인 운동과제로 결의하였다.

세계화와 진전과 함께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한 GC는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의 시민권(Rights as a citizen)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한편 동전의 양면처럼, 시민적 책임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이웃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왔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이 21세기 인류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제기되면서, 근대성의 한 축인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동식물, 자연과 생태계 등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지구시민의식의 개념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시민(world citizen)이 아니라 지구시민(global citizen)이다. 여기서 YMCA가 주목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으로서의 지구시민의식(GC)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 그리고 한 공동체가 -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구시민으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한(혹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YMCA가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과 그 영향을 고려하면서, YMCA는 지구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운동의 과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I. 지구시민으로서의 자각(self-consciousness)을 위한 교육(awareness-building)

21세기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위기 등 제반 위기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전지구적 차원의 행동을 이끌어낼 '새로운 지구적 정신(new global spirit)'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지구윤리에의 요청"에 다름 아니다. 지구윤리란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성을 지닌 윤리로서 비폭력, 생명 존중, 다양성과 관용, 평화, 정의, 참여, 연대, 보이지 않는 타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을 포괄한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YMCA는 우선 지구시민사회의 창출과 확장 그리고 이의

성숙을 위한 행위의 주체로 지구시민(global citizen)을 상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Joyce & Nicolson(1979)에 의하면, 지구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문화교육, 미래교육 등을 포괄하며, 그 내용은 :

- ▷ 지구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인과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 ▷ 엄청나게 복잡한 지구촌의 현상을 현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 하고
- ▷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원주의를 촉진시키고
-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도덕적 감정이입을 통하여 전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지구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 ▷ 현재의 전지구적 문제들을 지구시민의 공동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신념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공동체교육의 큰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영역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구촌의식 (Global consciousness)’ 교육으로서 이는 평등과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권리와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가 단위의 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공선(public good)을 확대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구체적으로는 ▷ 지구화(globalisation)와 지구시민의식(planetarian sense of citizenship)에 대한 교육 (참여적, 창조적, 문화적으로) ▷ 지구촌시대에 요구되는 지구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에 대한 이해증진 ▷ 생명에의 감수성 교육 (문화감수성 및 영성, 새로운 감성, 개성과 예술감각을 갖춘 인간 교육) ▷ 상생과 공존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이다.

둘째, 다원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 간 소통능력 배양하는 일이다. 한국YMCA의 경우, 우리문화 속에 있는 폐쇄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보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및 차별의식을 체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재한 외국인과의 대화마당,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 및 현장 방문, 외국인 입장에서 방송모니터링, 모의국제회의, 지구촌 음식탐방 등을 들 수 있겠다.

셋째, 체험이 가장 빠른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구촌의 현실인식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의 경우, 미얀마, 캄보이아, 동티모르, 몽고 등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Work Camp”나 “평화캠프” 등을 조직하여, 민박을 하면서 빈곤의 현장, 환경파괴와 벌목의 현장,

인권유린의 현장, 소수민족의 삶의 양식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구촌 전체를 책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깊은 자기성찰 체험교육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폐제 공동체, 아시아의 여러 아쉬람(명상 공동체) 등 영성 공동체들을 방문·체험함으로써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체험, 영성적인 삶, 깊은 자기성찰의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요즈음 많이 회자되는 침묵으로 장시간 걷는 “걸으며 기도하기” “명상춤” “음악과 예술을 통한 명상” 등도 YMCA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YMCA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외국의 도시 및 YMCA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과제나 공동 프로젝트로서 환경문제, 청소년 교육, 문화이해 및 교류 등을 설정해볼 수 있다. 한 예로, 청소년들이 개최하고 주관하는 UN모의총회, YMCA와 UN이 매년 공동개최하는 “UN-YMCA의 날” 행사를 공동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한국Y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봄에 겪고 있는 황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YMCA 및 몽고 YMCA와 협력하여 고비사막 등 사막화가 진전되는 지역에서 청소년과 대학Y의 나무심기 워크amp(Work camp)를 이웃나라 YMCA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지구적 차원에서 정의(justice)와 형평성(equity)의 문제를 제기하는 advocacy action

UN을 비롯하여, World Bank, IMF, WTO 등 초국적 경제, 정치 기구들이 결정하는 제반 정책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적 살림살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의 결정과정(governance process)에의 참여를 비롯하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등을 시민사회의 초국적 연대를 조직함으로써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의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감시하는 운동 등이 advocacy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Clean Cloth Campaign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정책과 개발지원기금(ODA)에 대한 모니터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국내의 대기업(초국적 기업)이 저개발국가에서 행하는 기업행위의 정당성을 모니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III. Fair-Trade 등 대안적 경제활동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창출 및 확대

뒷부분에서 한국YMCA의 사례로 소개되겠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Fair-Trade와 같이 초국적 민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창출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Case Study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IV.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실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슬로건처럼, 전지구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YMCA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community)에서 다양한 실천을 조직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속에서 지구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운동 과제들로서 YMCA가 채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보면:

- ▷ 땅을 살리고 지역농업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협동운동 그리고 도농교류운동이 발전된 형태인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Local food 운동
- ▷ 지역에서의 다양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운동, 숲 가꾸기, 자원재활용 운동, 자원순환 운동 등.
- ▷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역화폐운동 (LETS: Local Exchange and Trade System)
- ▷ 우리지역 제품사기 운동, 지역사회의 도구대여관 등 지역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 ▷ 지역문화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지역축제의 조직, 지역 토산물 전시장, 씨앗은행 설립 등
- ▷ 지역의 사정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걸맞는 대안교육운동의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와 이주결혼여성들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어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 ▷ 외국인 노동자 상담 및 지원활동,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
- ▷ 다문화 가정 지원활동, 이주결혼자와 자녀들의 인권(특히, 사회적 시민권) 보호를 위한 활동, 소수자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지키는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 들이 있겠다.



2011 유네스코 유스포럼 - 성과와 한계

*How youth
drive change*

2011. 12. 2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팀 신미아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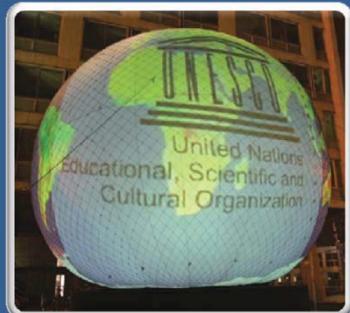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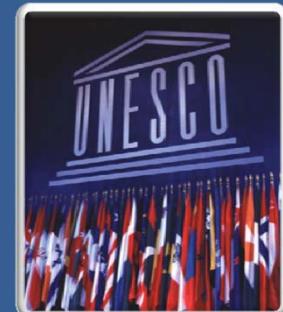
유네스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1945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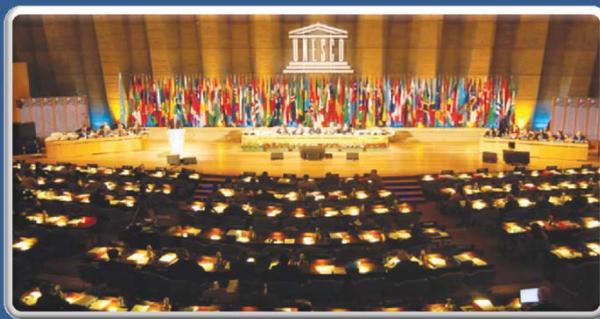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프랑스 파리 본부,
세계 52개 지역사무소



195개 회원국,
2년마다 총회 개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유네스코?



2011. 10. 유네스코총회,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가입 결정



유네스코 유스포럼 UNESCO Youth Forum



유네스코
총회

19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네스코
최고의사결정기구

유네스코
청년포럼

유네스코총회
부속 행사

목적

청소년들의
청소년 정책 개발
참여 증진

1st UNESCO
Youth Forum:
1999
Entirely owned by youth
who are the drafters of
the Final Report



포럼 참가자



UNESCO Youth Forum

- 유네스코 청년포럼? 청소년포럼?

UN의 Youth : 15-24세



UNESCO Youth Forum 참가자

- 18-30세 / 15-24세
-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추천
- 국가대표단 성격





개최경과



1999. 11.3.-5. 1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약 120명
- 각국의 청소년정책 및 주요사업

2001. 10.12-14. 2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83개국 131명
- '절대빈곤 추방', '정보소통기술(ICTs)의 과학, 문화 발전 및 지식사회 구축 지원'

2003.9.26-28. 3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105개국 154명
- '물관리 지속가능발전교육', 'AIDS예방교육'

개최경과



2005. 9.30.-10.2. 4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128개국 약 230명(대표 184명)
- '청년과 문명·문화·민족간 대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실천방안
- * 아시아, 유럽 등 지역별 유스포럼 개최

2007. 10.12-13. 5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116개국 약 270명 (대표 174명)
- '교육과 경제발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과 유네스코의 역할'

개최경과



2009. 10.1.-3. 6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89개국 약 210명 (대표 128명)
- '위기극복을 위한 투자: 유네스코와 청소년 단체의 협력관계',
'청소년 참여: 유네스코 청년 포럼,
장기적 접근'



2011. 10.17-20. 7차 유네스코 유스포럼

- 127개국 약 440명 (대표 211명)
- '청년은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는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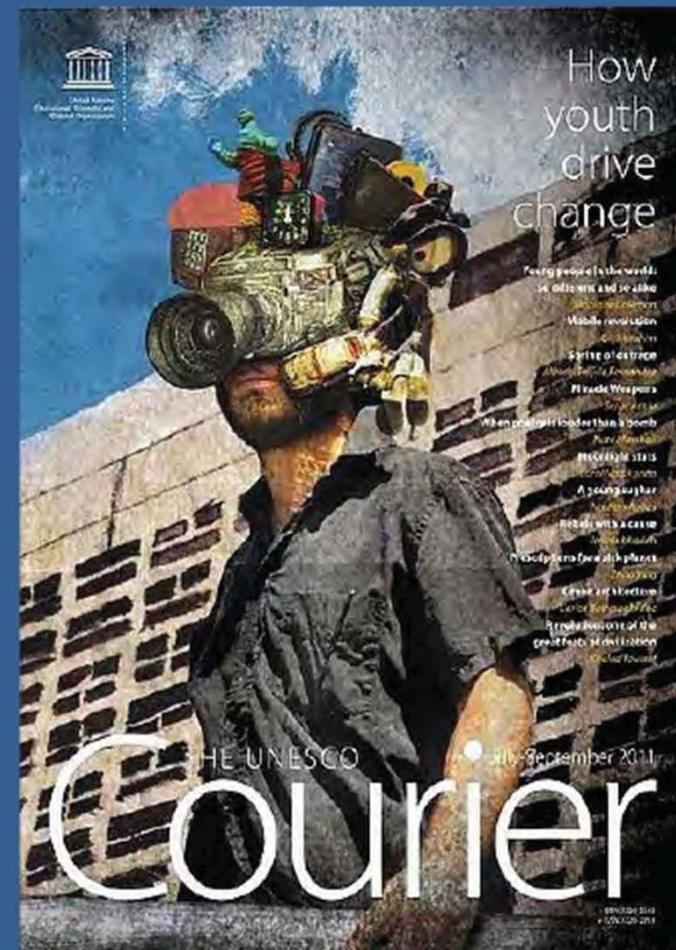
2011 유네스코 청년포럼

- 2011. 10.17-20 / 파리

계간지 [유네스코 꾸리에] 청년포럼 특집

Theme:
“How youth drive
change”

2011 Youth Forum:
17-20 October,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2011 유네스코 청년포럼

- 2011. 10.17-20 / 파리



How youth drive change!

행동하는 시민:
정치적, 공적
영역의 청소년



청소년 소외,
폭력 대처방안

©Nubi Keyode



취업 장벽
넘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2011 유네스코 청년포럼

- 참가자



시민단체 활동가
아랍의 봄 청년 활동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청년 사업가
학생
장애인 청소년
국제 청소년 단체 활동가
유네스코 꾸리에 기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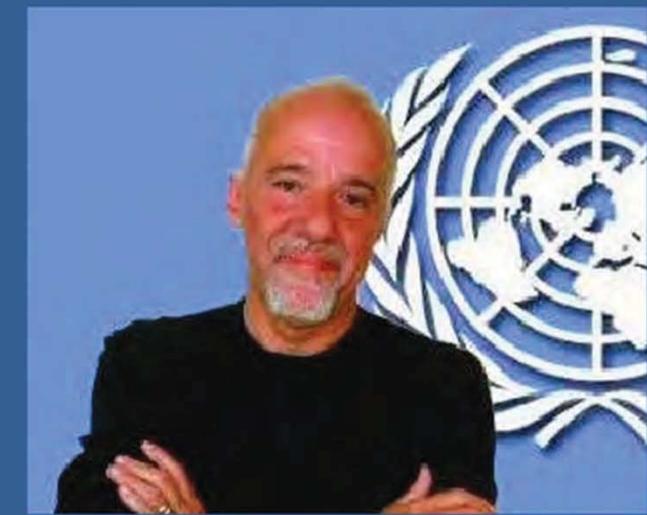
주요 발표자, 사회자



Forest Whit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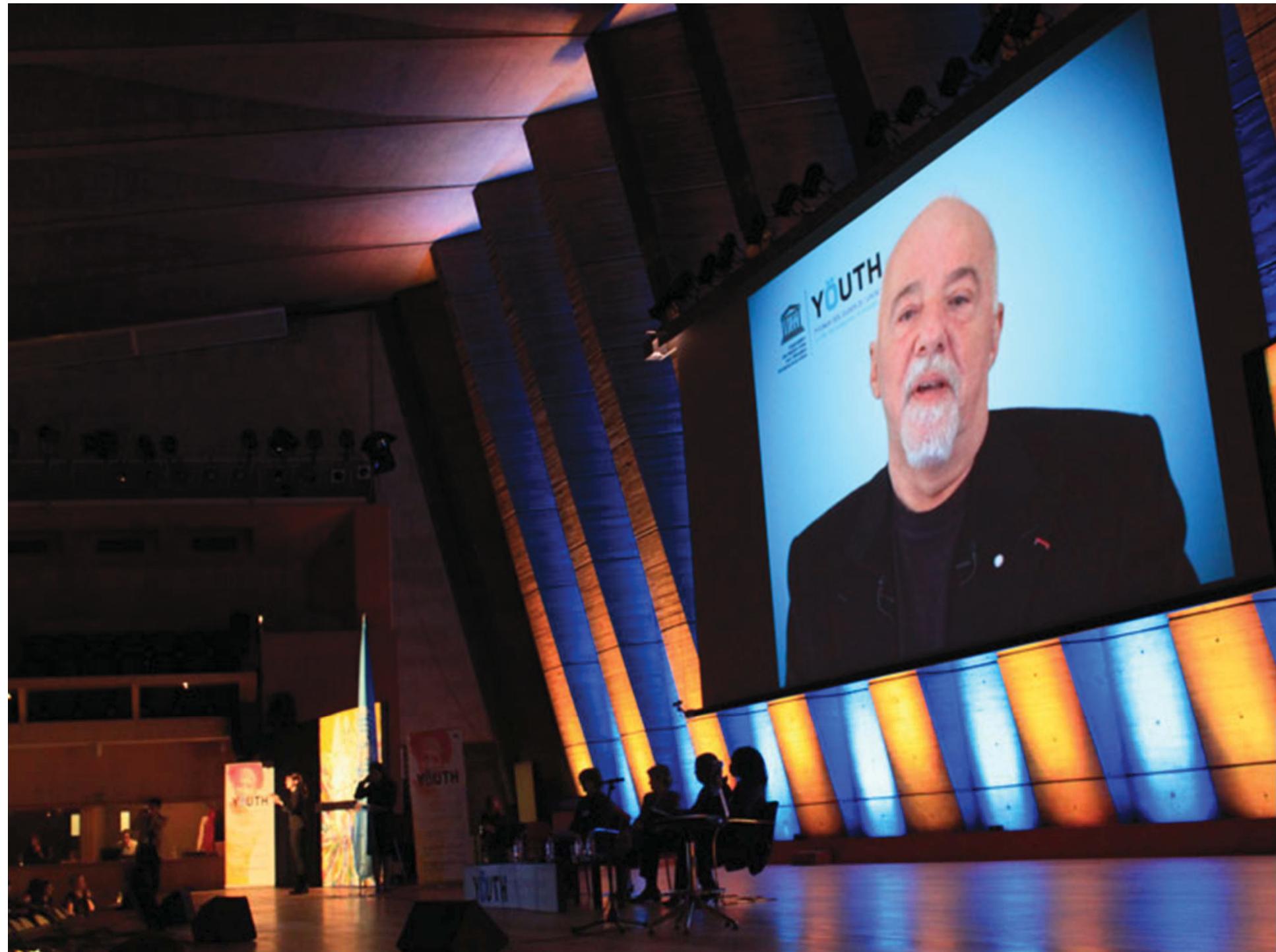
Nizan Guanaes



Paulo Coelho



Monique Colema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협력단체



advertising
branding services
content



포럼 주요내용



전체회의

- 개.폐회식, 보고서 채택

분과별 토의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아프리카 분과
- 유네스코 직원들과 부문별 주요현안 논의 및 제안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별 분과 토의

워크숍

- 갈등해결워크숍, SNS 활용워크숍, 리더쉽 워크숍

Café : 청소년관련 단체 홍보 부스 및 활동 소개

포럼 주요내용



주요안건

- 분쟁, 갈등의 평화적 해결
- 청년 실업, 빈곤, 사회적 기업
- 사회변화 도구로서 SNS
- 유엔 세계청소년의 해

최종보고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Share their experiences,
their views and ideas on
the themes of the Forum

Public online
discussions via
Facebook and Twitter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사전 토론



@unescoNOW
#UNESCOYOUTH

포럼 성과



- 유네스코 꾸리에, 포럼 논의를 통해 아랍의 봄 등 올해 주요 사회 변혁을 이루어낸 청년의 역할 확인
- 실업, 교육, 빈곤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청년 문제 양상의 전 세계적 유사성과 심각성 재인식
- 유네스코 내 유스포럼 가시성 및 중요성 증대
- 7차 포럼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립 안건으로 논의, 유네스코 사업방향에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 기틀 마련



포럼 한계



- 청년 문제가 빈곤 등 점차 생존의 문제로 전환하는데 대한 인식은 공유하나 해결방안 수립의 어려움
- 선거연령 저하 등 정치적 제도 변화에 대한 대표단 입장 차이로 합의 실패
- 포럼 보고서는 권고문으로 유네스코 사업 변화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미흡
- 논의시간 부족, 사무국 주도 운영방식, 대표단 전문성 부족 등으로 권고문 내용 미흡





- 청년들의 비정규노동 일반화, 금융 불안,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은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 월가 점령 등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위 등이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 필요



- 유네스코 유스포럼은 현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수준의 국가청소년포럼
- 시의성있는 주제를 다루며, 유네스코총회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청년대표단 중심으로 포럼 운영방식 변화 필요
- 포럼 권고문이 좀 더 구체적이고 참신한 내용을 담는다면 국제사회 파급력과 의제설정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전망 II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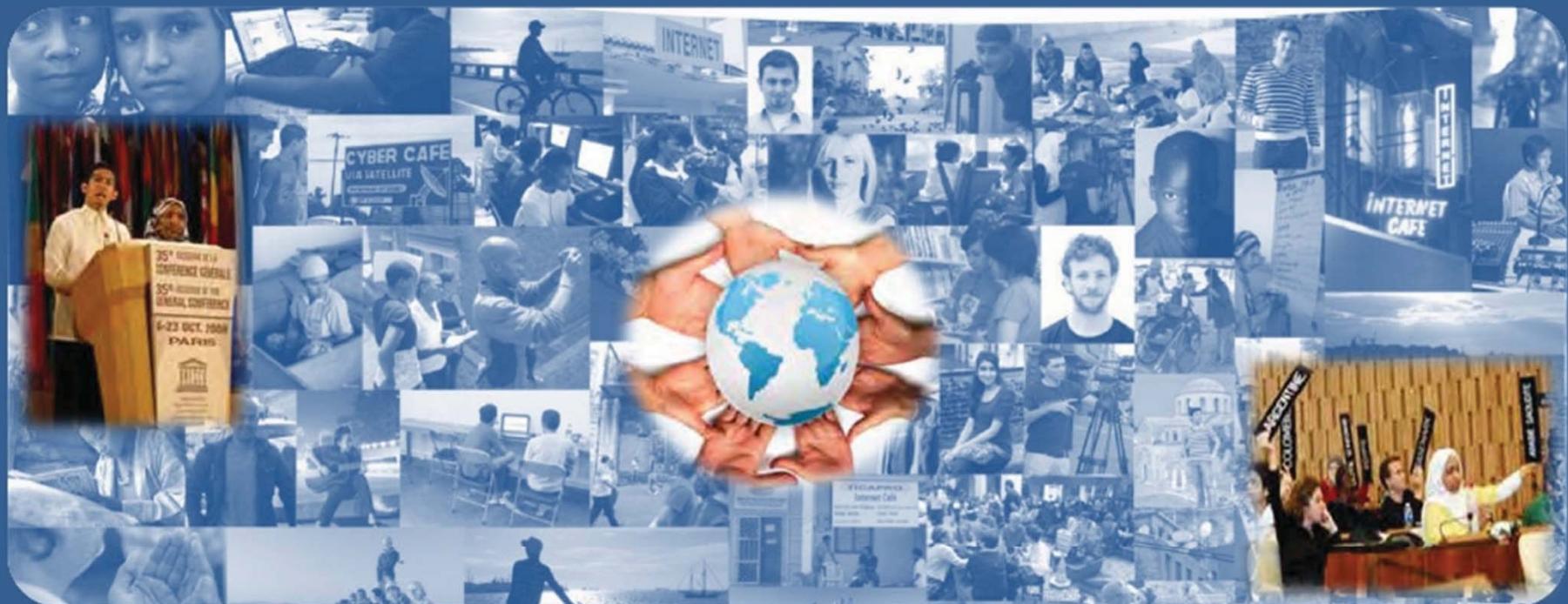


YOUTH

7TH UNESCO YOUTH FORUM
Youth voice for change



THANK YOU





* 글로벌시대의
청소년활동의 방향

이선민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의 장점 및 단점

청소년 활동의 추진방향

봉사활동 – 해외 혹은 국내



- 장점

- ❖ 글로벌한 봉사활동

- 봉사정신 고취

- ❖ 문화전도사 역할

- 애국심 증가

- ❖ 보람 및 감동

- 단점

- ❖ 봉사활동에 편향된

- 단순한 활동

- ❖ 스펙만을 위한 활동

- 가능성-지속성 없음

- ❖ 그릇된 애국심 남발

- 어글리코리안



봉사활동 - 해외 또는 국내



해외인턴



- 장점

- ❖ 한 분야의 깊은 지식 요구
- ❖ 문화적 사전 지식과 업무 사전지식이 필요

- 단점

- ❖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음
- ❖ 다양한 활동 불가
- ❖ 자유시간과 개인활동의 제약

해외인턴





해외테마체험단



- 장점

- ❖ 한 분야의 깊은 지식 요구
- ❖ 주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 가능

- 단점

- ❖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음
- ❖ 나이의 제한 필요
- ❖ 자유시간과 개인활동의 제약



해외테마체험단





동아리 - UNEP Angel



- 장점

- ❖ 글로벌한 봉사활동

- 봉사정신 고취

- ❖ 보람 및 감동

- ❖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경험이 가능

- 단점

- ❖ 단순한 활동

- ❖ 스펙만을 위한 활동

- 가능성-지속성 없음

- ❖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

동아리





- 장점

- ❖ 한 분야의 깊은 지식 요구
 - ❖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이 가능
 - ❖ 대한민국 대표의 자긍심 고취
- 단점
- ❖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음
 - ❖ 엄청난 양의 사전학습이 필요

국제회의





국가간 교류



- 장점
 - ❖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경험이 가능
 - ❖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자긍심 고취
- 단점
 - ❖ 단순한 활동
 - ❖ 스펙만을 위한 활동
 - ❖ 가능성-지속성 없음
 - ❖ 문화 생활에 편중



청소년 활동의 추진방향



- 청소년 중심의 계획
- 사전교육의 중요성
- 다양한 활동계획과 방향
- 미래지향적인 계획
- 청소년의 자율성 강조



감사합니다